



손나는 '가을을 유혹하는 자태'
 걸그룹 에이핑크 출신 손나는이 성숙하고 우아한 매력이 돋보이는 가을 패션을 선보였다. 한 패션브랜드와 함께 내놓은 화보에서 니트와 어울리는 가죽 스커트를 레이어드해 차분하면서도 도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포인트로 준 높은 하이힐은 손나는 특유의 각성미를 돋보이게 한다. 사진제공 | 제이제이제이

여름 극장가 '빅4' 기대 이하 성적

여름시장 흥행을 노린 한국영화의 희비가 엇갈렸다. 감염병 사태 이후 '범피도시2'가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으면서 극장 관객수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시각 속에 네 편의 대작이 간판을 내걸었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이라는 일부 평가가 나온다. '외계+인'과 '비상선언'은 이미 흥행에 실패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산: 용의 출현'(한산)과 '헌트'가 호평 속에 순항 중이지만 '대박' 흥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믿었던 '한산'도 1000만 좌절

손익분기점 넘긴 영화 '한산'이 유일 관람료 인상·OTT 시장 확대 등 원인 "블록버스터 4편 잇따라 공개 무리수"

●"1000만 영화 없는 여름, 위기감 커져"

24일 현재까지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한산'이 유일하다. 이날까지 누적 682만 관객을 모으며 250억원의 제작비를 거둬들이게 됐다. 앞서 200~300억원 규모의 제작비를 들인 '외계+인'과 '비상선언'은 각각 150만 명과 200만 명에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한산'도 상영 5주차를 지나며 급격하게 기세를 잃어 평일 하루 평균 3~4만여 명, 주말 10만여 명을 동원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800만 관객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극장을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9월 추석 명절을 겨냥하는 신작이 대거 개봉할 예정이어서 '한산'의 자리는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개봉해 2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328만 관객을 모은 '헌트'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영화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은 25일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극장의 완전 정상화를 기대했다"면서 "감염병 여파로 개봉을 미뤄둔 대작이 여전히 많아 향후 시장의 흐름을 더욱 주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관람료 인상의 영향?"

영화관계자들은 올해 여름시장에서 한국영화 기대작들이 예상 밖으로 고전한 배경의 하나로 "극장 관람료"를 꼽고 있다. 각 극장은 2020년 2월 감염병 확산 사태 이후 관객이 급감하고 매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자 관람료를 40%가량 올려 받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 여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네 편 가운데 가장 앞서 '외계+인'이 개봉한 7월



한산: 용의 출현

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극장 총 관객수는 약 2025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약 2984만 명)보다 32%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극장 매출 규모 감소세는 약 2512억 원에서 2071억 원으로 17%에 불과했다.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은 "극장 관객수가 많이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감염병 확산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여전히 차이가 크다"면서 "관람료 인상이 관객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고 밝혔다.

●"영화 관람 행태가 달라졌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른 관객의 관람 행태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봉석 영화평론가는 "OTT 플랫폼에 익숙해진 관객이 '특별한 극장용 영화'를 따로 생각하게 됐다"면서 "평가가 엇갈리는 작품을 굳이 극장에서 보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극장에 몰린 대작들이 관객을 나눠 가지면서 흥행 경쟁이 '치킨게임' 양상이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극장 관객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네 편이나 잇따라 시장에 내놓은 건 무리수였다"면서 "한국영화 기대작 뿐 아니라 '탈진: 매버릭'과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등 외화까지 관객을 분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블랙핑크

블랙핑크 '핑크 베놈' 신드롬 새앨범 선주문 200만장 돌파

발매 3주 앞두고 케이팝 걸그룹 최고 기록

9월 정규 2집을 선보이는 걸그룹 블랙핑크가 벌써 선주문량 200만 장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수록곡 '핑크 베놈'을 미리 공개해 국내외 차트를 점령한 이들은 앨범 정식 발표까지 아직 3주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어 300만 장 판매까지 기대케 한다.

25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11일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의 예약 판매를 시작해 이날 선 주문량 200만 장을 넘겼다. 역대 케이팝 걸그룹 가운데 최고 기록이다.

앞서 블랙핑크는 2020년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으로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이들은 2집 예약 판매 일주일 만에 선 주문량 150만 장으로 전작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를 과시하며 일찌감치 기록 경신을 예고했다.

'본 핑크'는 말 그대로 "블랙핑크의 본질을 표현"한 앨범이라고 이들은 소개했다. 이들은 최근 캠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늘 '본 투 비 블랙핑크'(Born To Be BLACKPINK), 즉 태어나기를 블랙핑크라고 말한다. 새로운 콘셉트에 도전하면서도 블랙핑크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면서 "이처럼 우리를 가장 뚜렷하고도 선명하게 표현해보려고 멋있게 만든 것이 '본 핑크'"라고 밝혔다.

'사랑스러운 핑크'라는 뜻의 수록곡 '핑크 베놈'에도 역시 자신들의 이 같은 정체성을 담았다고 설명한다. 힙합 장르의 '핑크 베놈'은 강렬한 비트와 어우러지는 한국 전통악기의 사운드에 블랙핑크 멤버들의 랩과 보컬이 더해져서 평가받는다.

이들은 전날 앨범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수록곡 모두 블랙핑크의 새 역사를 쓸 결정체"라면서 "특히 타이틀곡은 글로벌 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압권"이라고 자신했다.

블랙핑크는 29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리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미국에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해 앨범을 정식 발표하고 150만 명 규모의 대형 월드투어 준비에 돌입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채널A '하트시그널' 일본판 공개하자마자 랭킹 9위 히트 예감

한국인 남성 3명·일본인 여성 4명 합숙 그려 베트남판 '1박2일' 시즌4도 현지서 인기폭발

채널A '하트시그널', KBS 2TV '1박2일' 등 인기 예능프로그램이 해외에서 잇따라 리메이크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저마다의 특색과 개성으로 현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케이(K) 콘텐츠'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즌3을 방영한 연애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이 일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아베마에서 '하트시그널 재팬'으로 리메이크해 24일 첫 공개했다. 3명의 한국인 남성과 4명의 일본인 여성이 서울의 한 숙소에서 합숙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해당 콘텐츠는 원작의 인기에 힘입어 공개 하루 만인 25일 아베마의 '오늘의 전체 랭킹'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



트시그널'은 방영 당시 일본에서도 젊은 시청자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아베마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한국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로맨틱한 연애가 전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시즌4를 방영하는 KBS 2TV '1박

2일'의 리메이크 프로그램이 주목 받고 있다. 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1박2일' 베트남 버전은 배우 끼우민 투안(Kieu Minh Tuan) 등 6명의 연예인이 전국 곳곳을 여행하는 모습을 그려 방송 7회 만인 최근 현지 SNS에서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 'Vie Z'는 "프로그램이 베트남의 아름다움과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잘 담았다"고 호평했다.

앞서 MBC '복면가왕', SBS '런닝맨' 등이 해외에서 리메이크돼 인기를 모은 바 있으나 최근의 흐름에는 tvN '사랑의 불시착', JTBC '이태원 클라쓰' 등 '한류드라마'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여져 눈길을 끈다. '하트시그널 재팬'을 진행하는 배우 아오이 와카나는 방송에서 "한국드라마나 문화가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매력적이다"며 프로그램의 흥행을 자신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노동부, '흡뽁쇼' 사망 사고 강제 수사

가수 사이의 콘서트 무대 해체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싸이 소속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늦은 오후까지 서울 강남구 피에이션 본사와 하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고 당시 무대 설치업자의 계약 관계, 무대 설치 관련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 31일 강원도 강릉에서 싸이 '흡뽁쇼' 시설물을 해체하던 몽골 국적의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싸이 측은 "대책 마련 및 재발 방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BTS 지민 '친구' 日 레코드협회 골드인증



지민 (1억 회), 다이아몬드(5억 회)로 구분해 인증한다. 지민이 작사·작곡·프로듀싱까지 참여한 '친구'는 방탄소년단 정규 4집 'MAP OF THE SOUL: 7' 수록됐으며 마블 스튜디오 히어로 영화 '이터널스' OST로 삽입됐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에서는 1억7500만 회 스트리밍됐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이 일본 레코드 협회에서 자작곡 '친구'로 골드인증을 받았다. 일본 레코드협회는 곡의 누적 스트리밍 횟수에 따라 실버(3000만), 골드(5000만), 플래티넘(1억 회), 다이아몬드(5억 회)로 구분해 인증한다. 지민이 작사·작곡·프로듀싱까지 참여한 '친구'는 방탄소년단 정규 4집 'MAP OF THE SOUL: 7' 수록됐으며 마블 스튜디오 히어로 영화 '이터널스' OST로 삽입됐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에서는 1억7500만 회 스트리밍됐다.



브로커

각 주목할 만한 신작을 선보이는 '스페이스 프레젠테이션 섹션'과 현지서 개봉하지 않은 작품 중 최고의 영화를 상영하는 '필라 섹션'에서 소개된다. 영화는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이후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초청받고 있다. 아 이를 기울 수 없는 사람이 익명으로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 박스'를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했다.

'브로커' 토론토 국제영화제 등 초청

영화 '브로커'가 제 47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와 제70회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각국 주목할 만한 신작을 선보이는 '스페이스 프레젠테이션 섹션'과 현지서 개봉하지 않은 작품 중 최고의 영화를 상영하는 '필라 섹션'에서 소개된다. 영화는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이후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초청받고 있다. 아 이를 기울 수 없는 사람이 익명으로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 박스'를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했다.

SM 이수만 총괄, 몽골에 K컬처 전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친박 문화부 장관, 몽골 최대 제사 히어로 엔터테인먼트의 바트울저 바타르 총감독 등과 만나 문화창조사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조언했다. 25일 SM엔터테인먼트 "이번 만남은 이 프로듀서에게 직접 세계 문화 사업을 이끄는 전문 식견과 협력을 구하고 싶다는 문화부 장관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몽골에 케이(K)컬처 제작 시스템을 전파하기 위해 나섰다. 이 프로듀서는 21일부터 24일까지 몽골에 방문해 오윤 에르덴 몽골 총리, 노민 친박 문화부 장관, 몽골 최대 제사 히어로 엔터테인먼트의 바트울저 바타르 총감독 등과 만나 문화창조사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조언했다. 25일 SM엔터테인먼트 "이번 만남은 이 프로듀서에게 직접 세계 문화 사업을 이끄는 전문 식견과 협력을 구하고 싶다는 문화부 장관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엠넷 '마마 어워드' 11월 29·30일 개최



MAMA AWARDS

엠넷 음악 시상식 '마마'(MAMA)가 올해 '마마 어워드'로 이름을 바꾸고 11월 29·30일 이틀간 일본에서 열린다. 25일 CJ ENM에 따르면 시상식은 약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열리며 엠넷 공식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 CJ ENM 김현수 음악콘텐츠본부장은 "올해는 케이(K)팝을 대표하는 시상식으로서의 정통성을 잇는 무대와 '마마 어워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진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